

「다문화주의 시각으로 본 탈북학생 교육의 접근법」 토론문

김 영 석 (경상대학교)

먼저 다문화주의 시각에서 탈북학생의 교육에 접근해야 한다는 남호엽 교수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공감은 크게 다문화교육이 단순히 문화적 소수자의 적응을 돕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사회정의 실현의 수단이라는 점, 둘째 탈북학생들이 남한의 문화와 차별화된 문화를 가진 소수자임과 동시에 사회적 차별의 희생자라는 점, 셋째, 탈북학생들이 단순히 공감과 동정, 동화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성공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사회정의실현의 수혜자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논문이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쓰여진 것이기는 하지만, 탈북학생들에게 필요한 형평교수의 방법이나 교육과정, 학교 체제의 변환 방식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논의를 연장하였으면 하는 기대도 해본다. 탈북자 출신 교사의 채용을 비롯하여 탈북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학교제도 개선방안, 탈북학생들이 가진 선행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한 교수방법 및 학습지원 방법, 탈북학생들에 대한 편견해소방법 등 다양한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탈북학생의 관점에서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교육은 적극적인 사회개혁프로그램으로 주창되었다. 한국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쯤으로 축소되어 이해되고 있는 점이 아쉽다. 다인종 사회에서 문화적 소수자가 동시에 사회적 소수자가 되기 쉽다는 점에서 사회정의 문제가 인종이나 종족문제와 결부되어 '문화'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지만 근본 취지는 평등의 실현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주 여성의 자녀가 사회적 주류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교육프로그램이 다문화교육인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주 여성의 자녀 뿐 아니라 농촌이나 도시 저소득층의 자녀, 여성 등의 사회적 성공 기회도 제한되어 있다. 즉 평등의 실현을 제한하는 교육제도와 입시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다문화교육이 실현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탈북학생들이 그들이 가진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포기 없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민 교육 역시 다문화교육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탈북학생들은 이념적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탈북이주민들은 한편으로 압제에서 벗어나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경험이 있는 반면 전체주의 사회에서 성장한 경험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경험하는 남한의 민주주의는 단순히 적응해야 할 문화적 차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그들이 북한 체제를 탈출한 이유가 되어야 한다. 남한의 민주주의가 개인의 행복을 지원하고 공정한 사회적 성공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라는 확신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확고한 권리

의식을 가진 참여의 주체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